

건설 한파에 원재료비 인상... 레미콘업계 타격

출하량 4년만 28.2% ↓ 골재 수급난에 가격 인상 건설사 단가 인하 압박도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레미콘 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전방산업 침체와 함께 골재(모래) 등 원자재값이 치솟고, 이를 운송하기 위한 운반비까지 뛰면서 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8일 광주전남레미콘협회등조합에 따르면 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연간 출하량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추이를 보면 지난 2020년 613만3360㎥(루베)를 기록했던 출하량은 4년이 흐른 지난해 440만2099㎥로 28.2%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과 함께 심각한 원자재 수급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골재 수급치는 종류마다 차이가 있는데 모래의 경우 전남 함평 뿐이다. 나머지 부족분은 남원에서 충당하는데 이들 수급처에서 공급되는 가격이 오르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다.

함평에서 공급되는 모래의 경우 지난 1월 6일을 기준으로 ㎥당 2500원이 인상돼 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원 모래도 지난해 7월 2만9000원에서 올해 3월 3만3000원으로 4000원이 뛰었다.

장성, 화순, 함평에서 공급되는 또 다른 원재료인 자갈 역시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인상이 이뤄지면서 ㎥당 2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2020년 1만8000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5% 올랐다.

업계는 향후 모래, 자갈 등 시멘트 원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반비(레미콘 믹서트럭) 인상도 무시할 수 없다.

운반비는 레미콘 가격의 20%를 차지, 레미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평균 운반비는 7만원 대로 오는 올해 4월까지 적용된다. 전년도 운송비는 6만4000원이었다. 다만, 올해 70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레미콘 업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전남레미콘협회등조합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를 찾아 골재 채취 인허가 관련 수급현황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그 해 8월에는 광주지방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분부를 통해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골재 수급 대책 마련 불가' 답변을 받았다.

이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업계의 단가 인하 압박또한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건설사 구매담당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건설자재협회회는 전국 레미콘제조사에 '시멘트 단가 인하 협상 추진' 공문을 보냈다. 시멘트 가격을 t당 10% (1만1216원) 가량 인하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레미콘 제조원가에서

시멘트가 3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반영, 단가를 내리겠다는 의미다.

양 측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고 건자회 측은 3000원대 인하를, 레미콘 업계는 700원 이하를 제시하며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골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 합리적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 직접전력거래 전용대출 출시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RE100 SOLAR-LOAN'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민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신상품 'RE100 SOLAR-LOAN'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35년 RE10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 E&S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RE100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은행이 정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 발전

시설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력 판매대금 등을 채권 양도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총 소요자금의 80%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전력 공급계약의 거래단가(원/kWh)와 연간 현금흐름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대출기간은 전력 공급계약 범위 내 최대 20년까지로 매월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신용등급별 차등 연 0.60%p, 담보비율별 차등 연 0.40%p, 기타 부수거래 및 영업점장 감면 연 0.30%p 등 최대 연 1.30%p까지 제공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MG제주연수원에서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2025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했다.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서광주금고 대상 등 11개 금고 수상 '영예'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MG제주연수원에서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2025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경영평가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 시상하고 건전한 경영 및 육성 사례 공유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광주새마을금고가 경영평가대상,

충무새마을금고가 경영우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11개 금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한 해 경영 성과에 대한 시상과 함께 새마을금고가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포용금융의 힘으로 상생의 초심을 되살려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새마을금고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롯데 광주점, 여수 핫플 '몽블랑 한즈' 오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여수 남만포차 거리 핫플레이스 디저트 카페인 '몽블랑 한즈' 매장을 지하1층에 신규 오픈했다. '몽블랑 한즈'는 재료 본연의 풍미가 살아있는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썬, 밤, 동백 등 다양한 맛의 파르페와 티라미수, 그리고 속은 바삭하고 겉은 촉촉한 걸쭉속바의 케이크까지 다양한 디저트류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 광통신 기업들, 미주시장 공략 '착착'

광융합진흥회, 미국 OFC서 공동관 운영

고려오트론(주) 등 300만 달러 계약 성과

광주지역 광통신 분야 기업들이 미주 수출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광통신 전시회(OFC 2025)에 공동관을 구성해 운영, 총 300만달러(한화 약 44억원)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OFC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통신산업 전시회다. 이번 진흥회 공동관에서는 고려오트론(주), 선일텔레콤(주), ㈜위라포토닉스, ㈜유도마린 등 12개사가 참가해 현장

조립형 광 커넥터, 광케이블 접속함체, 산업용 광모듈, 광 스플리터 등 광통신 분야 기업의 우수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와 적극적인 계약 상담을 이끌었다.

특히 고려오트론(주), ㈜위라포토닉스, 엑스빌테크(주) 등 6개사가 3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OFC 2025 전시회에 직접 참석해 국내 참여기업 기술력 및 마케팅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아울러 참여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2

기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OFC를 비롯해 광융합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개별전시회, 수출상담회, 시범사업 설치 지원, 인력 양성사업 등 국내 광융합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과 상담한 바이어를 올해 10월에 열리는 'Photonics Korea 2025'에 초청, 상담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ECONOMY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여천신협, 자산 1000억 달성

여천신협등동조합이 자산 규모 100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천신협은 최근 본점에서 자산 1000억 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주무용 여천신협 이사장을 비롯해 서도원 전무,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여천신협은 지역민과 조합원의 꾸준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조합원 중심의 투명한 운영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여천신협은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무용 여천신협 이사장은 "자산 1000억 원 달성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신뢰받는 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광주상의, 사업비 50억 규모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주시 기업지원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가전·자동차·부동산 분야 중소기업 임직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비 3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지역 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통합설명회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사업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개별 상담까지 병행하면서 참여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기업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한국전 기술연구원원의 '가전산업기업 인종 및 수출지원',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사업'을 소개하며 다양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안내했다.

한편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인 '가전산업 내일프로젝트'는 지역 가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자생력 제고를 목표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총 6개 기관이 공동 수행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내일 전환지원센터(근로자 구직 지원, 기업홍보·채용 지원, 취업역량 강화 지원),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기업 컨설팅), 가전 내일 전환지원(기술이전, 시제품, 특허·기술가치평가, 제작자 교육훈련), 가전 마케팅 지원(제품 브랜드, 판로 개척, 제작자 교육훈련), 가전 내일 청년특화지원(채용지원금, 청년장려금, 작업·근로환경 개선 등), 고용 기반 구축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추진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후 최고...증시는 반등

8일 원·달러 환율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16년이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 상승에는 관세 관련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9일 34%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중국이 같은 세율로 보복관세를 부과했

다고 맞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에 50% 관세를 더 부과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의 공갈(誑詐)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이 수 없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재반격했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2,334.23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6.03p(0.26%)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7.15p(1.10%) 오른 658.45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42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광주상의·광주경총 임장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갈등 중재안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8일 노동조합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임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이 중재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이제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중재안은 GGM 설립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며 "상생·화합·미래지향이라는 3대 원칙 아래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헌법상 노동3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은 경영진에게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노조에 유보하고 생산 물량 확대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양측 모두에게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고, GGM 경영진도 노사민정협의회와의 속의 결과를 존중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기업 내부 조기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35만 대 생산 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을 유보하자"라는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상의와 광주경총은 "현재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제와 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노사갈등의 장기화는 GGM의 미래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수출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노조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생산 차질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